

파맵신, 임상종양학 분야 전문가 이수현 박사를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 연이은 과학자문위원회 임명으로 병용요법 및 TTAC-0001(타니비루맵)을 포함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박차

<2019-03-22> 파맵신의 과학자문위원회(Scientific Advisory Board) 구성이 확대되고 있다.

항체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기업 파맵신(대표이사 유진산)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이수현 박사를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수현 박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한국 화이자(Pfizer), 그리고 한국 셀젠(Celgene)에서 암과 관련한 수많은 글로벌 임상시험의 연구자로서 참여하여 다수의 과학적 업적과 광범위한 경험을 인정 받고 있다.

이수현 박사는 글로벌 제약회사의 수석 의료책임자로서 오랜 경험을 쌓은 후 최근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로 자리를 옮겨 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유진산 대표는 "파맵신이 보유한 종양 관련 파이프라인들의 지속 개발에 있어, 병원 일선에서 활동 중인 이수현 박사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은 회사에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다"며, "향후 종양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개발 중인 제품 포트폴리오의 글로벌 임상시험 역량 및 후보물질 연구개발 강화에 이수현 박사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박사는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중요한 시기에 파맵신의 과학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파맵신의 경영진 및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치료적 대안이 없는 암환자를 위한 병용요법 및 향후 TTAC-0001(타니비루맵)을 포함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파맵신은 데이비드 체러쉬(David Cheresch), 나폴레옹 페라라(Napoleone Ferrara) 박사를 과학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 사진자료



▶ 사진 설명: 이수현 박사